

왕을 구하는 악 - 사무엘상

사무엘상 12:19-25, 히브리서 11:32

정운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사무엘상 개론

(1) 사무엘상 이해 : 중요한 인물과 대적을 중심으로 보아야

(2) 질문 :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왕인가, 무기인가?

1. 사무엘상의 내용 : 한나,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2. 사무엘상에서 언어야 할 신앙적 교훈

(1) 우리의 진정한 왕 - 오직 예수 그리스도

(2) 사울의 잘못 - 쓴 뿌리와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3) 전도자의 삶과 인격 - 사무엘, 다윗, 요나단의 삶과 그릇

결론 : 우리의 왕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확인, 지도자를 키우도록 기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의 친명, 사명, 소명 누리도록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다. 우선 사무엘상의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가 짐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나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롭게 많은 것을 발견했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다.

(1)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이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편이상 네 개로 나누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왕국기 1, 2, 3, 4로 나누었다. 한 권의 책이었음을 알고 있으면 된다.

(2) 사무엘상은 총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십 번을 읽어도 그 내용의 핵심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쉽게 핵심을 잡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인물이 누가 등장하는지이다.

①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이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다. 굉장히 큰 응답이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태어났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얻었는데, 나는 전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가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무엘상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있다. 이 기도가 너무 언약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 부은 자'다. 기름부은 자는 그리스도 아닌가?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는 최초의 사례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언약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언약적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사무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태영아 사역을 한 인물이 바로 한나이다.

② 두 번째 인물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으며,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다. 왕을 두 명이나 세운 사실상의 왕이다. 이 모든 직분을 가진 자가 성경에는 사무엘밖에 없었다. 사무엘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삼중직(三重職)을 넘어서는 사중직(四重職)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상에는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③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사울왕이다. 기회를 잃어버린 인물이고, 교만과 시기 질투로 인생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인물이다. 사무엘상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다. 다윗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은 사울왕의 실패다. 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적어 두었을까 싶었다. 훌륭한 사사들과, 그 당시 하나님이 역사했던 부분들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 나의 쓴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끝나 버린 것이다. 자신도 알아있었다가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어 버리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낳고 만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후대가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다스림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 사명, 친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4)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다. 요나단은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다. 우리는 주로 핑계를 댈다. 아빠가 어떻다, 조상이 어떻다, 그래서 내가 깊은 믿음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 그게 아무 상관없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빠르게 판단하고 겸손하기만 해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5) 또 사무엘상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과 싸움을 계속 했던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살아왔는데,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괴팍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고 블레셋이었다. 삼상13:19-20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다. 블레셋은 체질 기술이 발전해 있

었고 마병이 수천 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었다. 철을 만들 줄 몰랐다. 삼상13:19부터 보자. "그때에 이스라엘은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쟁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덜 때에 그리 하였으므로"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백성이 모였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창,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둘 뿐이었다. 22절을 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나? 블레셋은 온갖 무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딱 두 사람이다. 전쟁이 되겠는가. 불안에 떨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된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금 묵상해 보라. 무기가 뛰어나서 그 나라가 지켜지는가? 대한민국이 50, 60년대 북한보다 훨씬 무기가 없었고 가난했었다. 북한은 6.25때 탱크도 수천 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졌지 않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환경과 조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4)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나 스스로도 질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돈인가? 무기인가? 북한은 궁지에 몰리니까 원자폭탄을 열심히 만들었다. 그들의 왕, 그들의 힘이 원자폭탄이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사라진다. 회피한다. 무기만이 무기이고 왕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회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분을 낸다. 그런 경우는 주인이 나의 왕, 나의 헬기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학벌? 외모? 인기? 취직? 책을 사려고 어저 강남 교보문고에 갔는데, 길을 가면서 여학생들을 봤더니 드는 생각이, '이' 이 아가씨도 고쳤구나. 저 아가씨도 고쳤네? 저 아가씨는 고치고 싶겠네?'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이 자기의 왕을 외모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인기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많은 여학생들이 나도 소녀시대처럼, 2NE1처럼 가수가 되고 싶다 하고, 배우가 되고 싶다 하면서 인기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너무 많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왕이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왕정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왕정제도를 허락받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면서 전체 조건을 달았다. 다스리는 것은 필요할 일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전체조건이 있다. 삼상12:13 이하를 보라.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니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와 그의 손을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도, 너희의 왕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전체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나쁜 영적 뿌리들이, 그가 받은 축복과 기회를 저주와 사망으로 바꾸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악한 뿌리와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어리석고 속 좁은 왕으로 역사에 남고 말았던 것이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첫째로,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1) 1장과 2장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부분이다.

(2) 3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것은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과거에 훌륭한 사사들을 오래도록 보고 자리와서 인정을 받고 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많은 훌륭한 사사들과, 그 당시 하나님이 역사했던 부분들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 나의 쓴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끝나 버린 것이다. 자신도 알아있었다가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어 버리는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낳고 만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후대가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다스림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 사명, 친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대학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자라서 성탄절도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보낼 때 시대적 인물이 나온다.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환경이 교회다. 여러분이 모두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무엘,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약기를 많이 배우고 있다. 장로님들은 색소폰을 배우신다고 한다. 많이 참여하라. 장로님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램프들도 같이 해라. 여자들도 해도 되지 않나? 그 분위

기와 문화를 이 안에서 다 만들어야 한다. 춤을 잘 추는 전문인도 있지 않나? 교회 안에서 배워라. 나는 램프들을 끄고 있다. (웃음) 교회 안에서 춤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상담도 하고, 전문적인 것들도 배우고, 이 안에서 살아야 한다. 복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적인 리더를 키워야 한다. 그 천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분명히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쓸데없는 의심, 염려는 다 버려라. 해야 할 일 하나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성공시켜라.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기뻐했다. 41세에 결혼했다. 옛날 같으면 할머니인데, (웃음) 대학생일 때 내가 전도한 친구인데, 박사가 되고 서울대 교수가 되어서 결혼했다. 41살이 아니라 21살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축복해 주었다. 복음 안에서 살면 얼마든지 인재가 된다.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딸과 같이 가서 이야기했다.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잡히면 못 도망간다. 그 사람이 오늘 결혼하는거야.”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한다. 나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 않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시대적인 인물로 키워야 한다.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24시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전문성도 달란트도 방향도 경험도 전해 주어야 한다. 어려울 때는 포용해 주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품어줘야 한다. 중고생들도 다 할 수 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위의 형을 전도했다. 교회가 너무 먼데 걸어가기가 힘들니까 형에게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줬다. 그래서 둘이 번갈아가면서 자전거 한 대를 같이 타고 교회로 갔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권재야!” 했더니, “야, 너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맨날 반말을 한다.” (웃음) 영적으로는 내가 대신배니까. (웃음)

(3)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다.

(4) 10-12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부터 실수하기 시작한다. 마음 깊이가 잘못된 것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열등감, 비교의식, 교만함이 뿌리내려 있었다. 질서도 없다. 월권행위를 한다. 조금함이 제일 문제였다. 처음으로 사울이 한 실수가 뭐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 그래서 자기가 다 제사를 다 지내 버렸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유도 핑계도 잘 댈다. 영적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가 많다. 이런 쓴 뿌리를 없애고 진실해져야 한다. 핑계를 대는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핑계의 배경에는 거짓말이 있다. 진실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사단 아닌가? 사단에게 통로를 내주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 내면 세계에는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은 사단과 맞닿아 있다.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이 없는 것이다. 열등의식이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도 열등의식에서 나온 교만이였다. 안 되니까 타락해 버린 것이다.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마음에 있으면 마귀와 만나기 쉬워진다. 그러니 우울증, 정신병이 된다.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아닌가. 그 시작이 열등감이다.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사울왕은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고 말았다.

(5) 13-16장에는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된다.

(6) 이때 다윗이 등장한다. 사울이 실수했으므로, 하나님은 16장에서 다윗에게 기쁨을 붓게 하신다. 다윗이 그리고 악사로 궁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갈 정도였다. 삼상 16:23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주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 열등감, 교만, 월권행위, 비교의식 같은 것이, 사실은 악령이 들락날락하는 상태였다. 이 상태를 지유하는 악사로 들어간 기도의 후대가 다윗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사울 안에 있었던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이다. 18장을 보면 백성들이 환호한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문제다. 인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울인데, 여자들이 문제다. “오빠! 다윗 오빠!” 이러니까 시기를 안 내줬는가.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 일반 여자들이 한국 아이돌들을 너무 좋아하거나 우익들이 시기해서 반대하고 혐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이다.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인데, (웃음) 그 내용이 삼상18:7-9에 나온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니, 다윗이 자기 부하 아닌가? 다윗이 높아지면 자기가 더 높아질 것인데 빠져 버렸다. 이게 속이 좁은 것이다.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울만의 이야기인가? TV에서 예쁜 여자가 나오면 여자들은 칭찬을 안 하고 자꾸 까더라. (웃음) 무슨 관계가 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인데 왜 공격하나. (웃음) 시기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칭찬해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도 변화된다. 나는 더 큰 인물이 된다.

삼상18:9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베사가 아니다. ‘너 이제 죽었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대부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앞의 분이 너무 설교를 잘 해서 시기질투가 확 일어나더라는 것이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설교를 잘 하는 거냐.’ 이분이 참 진실하게 말했다. “원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믿을 만한 목사도 없다.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인간은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면 인간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다.

(7) 삼상19-30장을 보면,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닌다.

(8) 31장에 보면 결국 사울왕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

2. 사무엘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사무엘상이 비록 31장 까지 있는 긴 성경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하다.

(1)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사울왕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다. 다윗도 끝까지 훌륭하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랬다. 솔로몬도 끝까지 완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다. 인류에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정말 있는가. 링컨 대통령에게도 단점이 있었다. 인디언을 많이 공격한 때가 그 때였다.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지만, 인간은 환경에 따라 아주 훌륭해질 수도 있고, 아주 악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게 인간이다. 우리 후대들이 그러서는 안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나.

(2) 둘째로, 우리는 사울왕의 잘못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나?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따르지 않나?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했다. 어느 정도였나? 사무엘이 죽었는데 문제가 오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한다. 불러내니까 귀찮은데 왜 불렀냐 하면서 대답하고 그런다. (그게 진짜 사무엘이었나? 귀신이 속임수를 쓴 것이다.^{*부예베}) 사무엘이 목회자,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잘못된 각인, 체질, 뿌리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생각, 잘못된 마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쓴 뿌리가 안 바뀌면, 잡초를 잘랐어도 비 오면 확 자라나듯이 다시 커 버린다. 시기, 질투, 우울증, 비교의식, 부정적인 생각이, 예배시간에는 좀 잘린 것 같아도, 말씀 안 들으면 싹 올라온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확 올라온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싹 올라온다. 나쁜 쓴 뿌리를 씨앗까지 제거해 버려야 한다. 무의식, 잠재의식, 체질까지도 완전히 복음화되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메시지 잘 적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의 잘못된 뿌리가 교만이였다. 권위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인기에 관심 있고, 인재를 품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가졌으며, 칭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3)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자의 삶과 인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사무엘을 닮아야 한다. 다윗의 신앙을 닮아야 한다. 요나단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복음적인 인물이었다. 사울은 질투했다. 그런데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게 된다. 어느 정도였나? 사울이 직접 이야기했다. “야, 다윗을 죽여야 한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너의 왕권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안다고 말했었지만, 그래놓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닌다. 아는데 못 참았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성질을 못 참았다. 나의 나쁜 마음을 못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생각은 거기 있지만, 몸은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오늘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알아야 되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떤 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모든 것을 그래서 복음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큰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소명, 사명, 천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래서, ‘야, 저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인격을 가져야 해. 저런 모습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은 진짜 빛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현장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 선지자 같은 절대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용서와 복음이 아니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쓴 뿌리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쓴 뿌리와 잘못된 각인들과 불신앙의 체질들이 완전히 거둬내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